

## 코로나19로 멈춰 선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 주력 SUV 자동차 생산 제2공장 섰다운  
3공장 대형버스 생산 라인도 가동 중단 결정  
250여 협력업체들 도미노 생산 차질 불가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차질로 다음달까지 섰다운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신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스포티지와 쏘울을 생산하는 광주2공장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옛새동 안 휴업하는 것이다. 광주2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900대이며, 공장 전체 라인이 폐쇄되면서 최소 5천400대 감산 피해가 예상된다. 생산이 중단되는 차종은 스포티지와 쏘울이다.

광주2공장 생산 중단은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소비 위축 상황에 빠지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제3공장 대형버스 라인도 휴업하기로 했다. 연휴를 포함하면 사실상 일주일 휴무다. 하루 6대가량 총 18대가량 감산이 예상된다. 광주3공장 대형버스 생산 중단은 국내 버스 업체의 주문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2공장과 3공장 대형버스 생산 라인의 휴업으로 인해 기아차 광주공장 1차 협력업체 50여개를 포함해 1, 2, 3차 협력업체 250여곳의 도미노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광주2공장은 물량 변동에 따라 다음달 휴업 연장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당분간 휴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피해는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월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공장 가동일수 기준 14일간 휴업을 하면서 1만대가량의 자동차 생산량 감소 피해를 봤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이처럼 장기 휴업의 요인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은 1999년 현대·기아차 그룹이 출범한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노사 간 갈등으로 노조가 4~6시간 부분 파업하거나, 여름 휴가철에 맞춰 생

산라인 변경·증설로 인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적은 간혹 있었으나 적게는 사흘에서 보통 이상 라인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추가 감소해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제경기가 침체되면 당분간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공장 쏘울·셀토스, 2공장 스포티지·쏘울, 3공장 봉고·트럭·군수차·대형버스 등 하루 총 2천여대를 생산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대다. 2018년엔 45만5천252대, 지난해엔 45만5천865대를 생산하는 등 매년 45만대가량을 출고했다.

광주공장 뿐만이 아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기아차 소하리공장도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릴레이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기아차 노사는 최근 협상을 갖고 4월 27일부터 5월10일, 5월22일부터 25일까지 소하리 1·2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13일가량만 실제 가동될 예정이다. 소하리공장 내 완성차 생산과 연계된 부서 역시 이 기간 휴업에 들어간다.

노사 양측은 휴업기간 임금은 기존 관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휴업은 직원들의 연월차, 상여금, 성과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총 9개의 기아차 국내공장 가운데 휴업 논의가 진행된 세 곳은 프라이드, 스톤, 스포티지 등 수출용 차량의 비중이 높은 공장이다.

한편 기아차의 1분기 글로벌 판매는 64만8천685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11만6천739대로 1.1% 증가했으나 해외 판매가 53만1천946대로 2.6% 감소한 영향이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먼저 가해진 중국 판매는 3만2천2천대로 작년 동기(8만2천2천)보다 60.7% 급감했다.

유럽 역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1만7천대로 10.1% 줄었다. 중남미(2만2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해외 자동차 판매 감소로 전면 휴업에 들어간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의 정문 출입구가 27일 오전 굳게 닫혀져 있다. 광주2공장과 다음달 8일까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해외 수출 주문이 끊기자 정문 바깥 연휴를 전후로 휴업해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취지다. /강경숙 기자

-14.4%), 아태(2만8천대, -16.9%), 아중동(4만6천대, -0.7%) 등도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감소했다. 기아차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는 2분기에는 현지 공장 생산중단이 길어지고

판매망 회복이 지연되는 등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아라 기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  
광주시, 9월까지 방류수질 강화

광주시는 영산강 일원의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총인은 강물을 오염시켜 악취나 물고기 떼죽음을 유발하게 하는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로 분뇨나 하수에 다량으로 포함돼 있어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 2015년 동 기간 대비 10~27%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60만㎥/일) 목표수질은 0.127㎎/L(2015년 대비 10%), 제2하수처리장(12만㎥/일)은 0.055㎎/L(2015년 대비 27%)로 목표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당초 저감목표 1.4t을 훌쩍 뛰어넘는 3.2t을 저감했으며, 총인 처리 강화 등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최영범 기자

825번 지방도 1단계 완료

국도1호선~남악신도시 접근 원활

전남예슬교과 전남도청을 잇는 지방도 825호선 1단계 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개통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총 연장 3.6km 중 국도1호선에서 무안 소재 삼향초등학교 간 1.1km 구간인 1단계 구간은 지난 2015년 79억 원을 투입해 착공했으나 시공회사 사업 포기로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무려 4년 7개월만에 완공했다.

이곳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으나, 이번 도로 직선화로 남악신도시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전남예슬교와 삼향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단계인 삼향초등학교에서 전남도청까지 2.5km 구간은 178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목포시를 우회하는 것보다거리는 2km(5.6→3.6km), 시간은 5분(10→5분)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표해덕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